

권두언

전력 IT 연구개발 사업 착수

이 학 성 (주)효성중공업 연구소 소장

전력기반기금 및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총 2500여 억원의 예산으로 향후 4~6년 동안 추진 될 전력IT 연구개발사업 9개 과제가 각 과제별 착수 회의를 완료함으로써 본격 과제수행 작업에 돌입하였다. 최근 들어 전력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전력 IT라는 말은 이미 DVD 또는 MP3처럼 그리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버렸다.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전력 관련 언론매체에서 전력 IT에 대한 비전, 목표 및 전력 IT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도된 바 있고 많은 국내 업체들은 전력 IT 시장 접근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지고 있다.

종래 전통적인 전력산업을 성숙단계의 시장인 Red Ocean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새롭게 탄생된 전력IT를 기존 전력산업에 크다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변모시킬 MIDAS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수 년전 부터 우리는 전력 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겪어 오고 있다. 발전사 분할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전력구조 개편과 전력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은 기존의 전력산업의 패턴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수요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요구 등으로 Digital Paradigm Shift를 야기하게 될 전망이다.

전력산업과 IT산업간의 융합에 의한 Convergence의 확산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구조 및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구조 측면에서 기존 H/W 중심 산업이었던 전력산업의 구조가 S/W화 및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부가됨으로써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한편, H/W산업 자체도 고기능, Intelligent H/W 산업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전통적인 중전기기들의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전체 산업은 산업 간에, 또는 비즈니스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네트워크형 산업구조로 변모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보듯 기존 전력산업의 Value Chain은 전력 IT Convergence로 인하여 해체되고, 새로운 Value Chain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며 이러한 경우 Value의 원천은 점차 H/W 중심에서 서비스, Contents 및 Solution중심으로 이전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 전력산업에 있어서의 Business Model과는 다른 새로운 Business Model이 창출될 것이며, Business Model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려는 정부주도하의 산학연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전력IT 융합산업의 정의와 함께 국가적인 전략과제로 출범한 전력IT 연구개발사업의 탄생이다. 전력 IT 융합 산업은 종래 중전기기업체뿐만 아니라, 고객, IT업체 및 시스템 업체들도 함께 참여하여 구축하여야 할 복합산업이다. 이제 과거 전력산업에 종사하던 관련 기관들은 전력 IT 융합산업이 과연 관련 기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명확히 분석하고 새로 탄생되는 다양한 사업기회를 각 기관의 핵심 역량과 결부시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정부 주도하에 산학연이 일치 단결하여 전력 IT 융

합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Project는 이제 착수되었다. 전력 IT 기술이 전력산업 및 IT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가 될 확률은 높다. 이제 부터 사업의 모델을 발굴하고 전개하는 주체자는 본 Project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어야 하며 침체된 종래의 전통산업에 새로운 활기와 Vision을 불어 넣어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것은 완전히 기업들의 몫이다.

본 특집에서는 전력IT 9개 과제 중 과거 비교적 언론 매체에 소개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대상으로 개발 내용과 추진 체계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코자 한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 언급하지 않는 5개 과제는 결코 과제의 중요성이 덜하다거나 그 과제 수행의 의미가 덜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 코자 하며, 범국가적으로 120여개가 넘는 업체 및 기관들이 참여하는 국가적인 연구개발사업이 모두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전력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